

- 2011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

# 시 정 연 설 문

2010년 11월 12일(금)  
제20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민들은 고난과 역경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왔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지었고, 험난한 파도와 싸워 고기를 잡았으며, 목숨을 담보한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어 가족을 부양 하는 등 치열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동강난 강원도의 현실은 분단과 안보의 상징코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온 자연재해 또한 도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지형적, 지정학적 여건은 도민들의 삶을 쇠사슬 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더 이상 이런 운명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낙후와 소외로 상징되는 변방의 역사를 뒤로하고,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보자는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민들의 합의된 결단이며, 강원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바로 그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치와 정당을 잊고, 고집과 편견을 넘어서 오직 강원도만을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취임한 이후 단 한시도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단함도, 휴식의 달콤함도 잊었습니다.

심신은 힘겨웠지만 저의 가슴속에 더욱 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것은 도민들의 신뢰와 성원이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민선5기 도정에 동참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강원도정이 새로 출범한 금년도 하반기는 우리 강원도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다준 전환기적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지만 도민들께 많은 걱정도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역량을 다지고, 도민들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원도가 가야할 방향성을 새로 정립하였고, 그간 도민들을 걱정시켜왔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하였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앞으로 10년, 100년동안 강원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심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18개 시군 곳곳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삶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해 주지도, 또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원도만의 좁은 시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동북아와 세계사적 큰 흐름에서 미래 강원도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낙후와 소외를 기본전제로 한 균형발전의 논리로는 경제성을 무기로 한 중앙의 논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논리와 당위성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 국가와 동북아 발전의 큰 틀에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분야의 지원과 투자는 이를 촉진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내린 강원도 현실에 대한 진단이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처방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도청 공직자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 왔습니다.

아직은 성과를 말하기에 부족하지만 금년 하반기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주춧돌을 놓고, 그 실천전략을 모색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열배, 백배로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보다 치밀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5기 도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저는 도민 단 한 분이라도 행복이 늘어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도정의 목표를 「**행복한 강원도**」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실존의 강원도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품어보지도 않고, 시도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동강난 한반도가 아닌, 하나된 통일한국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부터 휴전선을 열고 철길과 바닷길을 만들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가야합니다.

우리 도가 전진기지가 되어 대륙국가의 꿈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호남과 충청이 발전하였다면, 우리 강원도는 환동해권 시대를 열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강원도이어야 합니다.**

나라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난이지만, 적어도 가난으로 인해 설움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도정의 지향점을 「**일자리는 행복 1순위**」, 「**교육은 희망 1순위**」, 「**복지는 효도 1순위**」에 두고 강원도에 특화된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할 것입니다.

시대를 담는 거대담론뿐만 아니라 작고 소박하더라도 도민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실리와 실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새해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원년**’으로 정하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도민들과 함께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3대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그토록 꿈꿔왔고, 염원해 왔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반드시 성공으로 그 끝을 볼 것입니다.

다른 경쟁도시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 스포츠계의 흐름을 볼 때 성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치는 IOC위원들의 선거로 결판이 나므로 무엇보다도 표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모든 주체들이 오직 유치만을 목표로 유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과 함께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盡人事 待天命’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인 기폭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철도, 도로, 경기장 등 모든 인프라는 차질없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버금가는 올림픽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림픽과 관광시설은 물론 병원, 학교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하여 일정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알펜시아 정상화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분명 힘겨운 과제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강원도개발공사도 평창으로 이전하였습니다만,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강원도 발전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당면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이 환동해 경제권을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주도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영토분쟁의 격한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앞으로 도래될 동북아경제권시대에 주변국가로 전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하루 빨리 뛰어들어 우리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는 경제성으로 무장한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경제성을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핵심은 외자유치 등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외자유치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셀(sell) 강원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와 경제로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인허가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외자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그룹단위 기업군의 유치에도 주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콜센터를 집중 유치하여 여성 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갈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도내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고, 공공기관·단체가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도내 금융업계와 협력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용효과가 큰 음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등 확실한 재원대책이 담보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공동성명도 발표하였지만,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도 구성하여 추동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DMZ와 접경지역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생태라는 명제로 이의 보전과 개발을 UN사업화하여 희소성을 지닌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폐광지역이 명실상부한 경제자립형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을 집중 발굴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주도의 교육혁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군인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 외국어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도출신 전직 국가대표선수들을 학교체육에 영입하여 꿈나무선수들을 지역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체육인재로 길러낼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은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문제만이 아닌 인구, 소득, 복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생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육발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강원도형 복지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자녀교육에 헌신하시다가 별다른 노후대책도 없이 생업현장에서 물러난 분들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에 이·통장을 활용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각종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축협과 협조하여 송아지 위탁사업을 통해 원금손실 없이 경로당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델을 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사 1경로당 지원 등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운동도 진작시켜 나가 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여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고교 학자금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문화의 명품화 전략으로 아시아의 스위스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곳곳에 소나무 공원, 명상의 숲, 치유의 숲을 조성할 것입니다.

18개시군마다 특색있는 길을 만들어 지역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에 허브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제조업도 일으켜 산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소득도 늘릴 것입니다.

양양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다양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도내 곳곳마다 꽃길과 색깔이 있는 아스팔트 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강원도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강원도의 역사문화자원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강원도에 작가마을과 창작촌을 만들고, 폐교와 활용가치가 떨어진 펜션 등을 예술인에게 제공하여 강원도를 '예술인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강원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예약과 판매기능을 갖춘 「스마트 강원 정보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 폰으로 상징되는 개인 정보화시대가 열렸습니다.

관광정보, 예약과 판매 등 강원도의 모든 것을 개인 단말기나 전화로도 서비스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통장 등 여론주도계층을 시스템내 정보요원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에게는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간업체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콘텐츠를 구상하는 단계로 내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강원도가 전진기지가 되어 대륙국가로 가는 물류·교통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이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12년은 APEC정상회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미국도 국가권력이 교체되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강원도에 획기적인 발전의 호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모든 길의 끝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때마침 국가교통망전략이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도 연결되어 유럽으로 가는 철도망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완공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해항, 묵호항, 주문진항, 속초항 등 동해안 항만개발계획을 법정계획화하여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여덟째, 생명·건강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림 수산업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특화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대와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품질인증제」를 추진하여 강원도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2015년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고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대체작목의 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려 농업소득을 높여나가면서, 주말농장, 관광농업 등 농외소득 또한 더욱 높이겠습니다.

어족자원 증대와 더불어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하고, 어촌관광과 해양레포츠산업도 더욱 활성화하여 어촌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아흡제,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강원도는 중복된 규제로, 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밀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저개발성이 또 다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강원도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시비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강원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에 순응해서도, 또 남의 탓만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불합리한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대상을 찾고, 논리를 세워 법제화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하여 타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와 국회와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를 가일층 강화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현재 18개시군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 사무소에도 시군공무원을 파견하여 도청과 수도권에서 시군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열린 도지사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후난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환동해권 지방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받는 실리적인 지방외교를 펼쳐가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이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초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2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도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여 다소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중 도와 시군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시군에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내년도 상환재원이 줄어들어 도전체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국비(국책+국고보조)는 금년도보다 2.9% 증가한 3조 8,357억원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출신과 연고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초는 도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법정 필수 경비 등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2조 8,980억원)보다 0.6% 증가한 2조9,180억원 규모로

- ◆ 산업경제, 농림수산, 국토해양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32.6%인 9,498억원
- ◆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6.3%인 1조 3,523억원
- ◆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3.7%인 1,074억원
- ◆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7.4%인 5,0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3%가 감소한 4,071억원 규모로

- ◆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84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93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9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2,00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등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길이 있지 않았습시다.

누군가 그 길을 처음 열었고, 또 다른 많은 이들도 그 길을 걸어 새 길이 만들어졌습시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한 실크로드도 처음에는 광활한 황무지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로마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행복한 강원도」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깝지도, 평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도 만날 것이고, 눈보라도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도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듯이 강원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바로 그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 이 광 재